

정헌을 익산시장, '넥솔론' 희생 앞장

군산 소룡동 관계사 방문 사장과 정상화 방안 논의...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지난 9일 군산 소룡동에 있는 (주)넥솔론 관계사를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하고 법정관리 중인 익산 소재 (주)넥솔론 회생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투자 중인 동일 계열 기업을 방문해 넥솔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가동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협의하는 한편, 넥솔론 기업 관계자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전북도와 함께 정치권에 넥솔론의 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10여년간 전북의 태양광산업을 선도하며 청년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넥솔론이 그간 중국의 저가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헌을 시장은 "넥솔론의 경영정상

화를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넥솔론은 2007년 익산 국가산업단지내 설립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소재 제조업체로서 전성기 때 1,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것이 현재 400여명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생산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50~90% 수준인 중

국의 저가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의 80%이상을 차지하면서 현재 기동율이 30%이하로 주저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4년간 모두 14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 지정

중국 영성사범대학에서 7월부터 세종학당 운영

원광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2017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에 선정된 원광대는 중국 강소성 영성시 영성사범대학과 공동으로 7월부터 세종학당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원광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영성사범대학은 1958년 개교한 4년제 대학으로 재학생이 2만1,000여 명에 이르고, 17개 단과대학에 70개 학과가 운영되는 우수 종합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성시에는 중·한산업단지가 조성돼 2001년 한국 기업이 자동차공장 진출을 시작으로 1,0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기업 관리원 2만5,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세종학당은 6개 국가에 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신규로 지정된 이들 6개 기관은 오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의 전 세계 한국어교육관계자 교류 행사인 제9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지정서를 공식 전달받는다.

/익산=장양원 기자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내달 1일 개장

8월 15일까지 열려 연결도로 통행 가능

아름다운 경치에 신선이 노닐던 곳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선유도(仙遊島),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군산시 해양관광의 중심인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유도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 하루 이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46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유도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46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천연 해안사구로 이루어져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1.2km, 폭 50m의 백사장은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아 가족 피서지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특히 지난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신시도~무녀도)으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육로 통행이 가능하여 선유도를 찾는 방문객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사전 현지점검, 주요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4개소 설치 및 파고라, 야외무대, 파라솔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점검을 거쳐 개장 전까지 보수·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피서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상오토바이·구명보트·구명조끼 및 구명환·이동식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무료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6일에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식전공연, 개장선언, 친절실천 결의대회, 물가안정협약체결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군산의 선유도는 선유나조와 명사십리, 산도귀범 등 선유팔경이 유명하며, 바다낚시와 갯벌체험, 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관광도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체험관광지다.

/군산=장현 기자

익산 폴리텍대학, 운영위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최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2017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학 운영위원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산업 인력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신설로 교육과정 특성화 및 교육훈련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교육계, 언론계,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조석남 학장을 비롯해 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 교육장, 서남대학교 김경안 총장, 익산시청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금강방송 이한오 대표, 보배물류 문성기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역 및 산업의 인력수요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안이 논의됐으며 2017년도 실행사업 계획 및 2018학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대학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산업단지 여름철 집중 방역소독

군산시가 여름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 단지를 구성,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방역은 관내 총 7곳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 2~3회(성수기 5회)의 순회 방역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가장 많은 기업체가 입주한 오식도동 국가 1, 2 산업단과 소룡동 일반산업단 총 4개 권

역으로 나눠 오전과 오후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컨벤션센터 내에 위치한 기업지원센터에서 자체 방역장비를 활용해 직접 소독에 나선다.

또한 읍면에 소재한 일반산업(서수, 임피, 옥구, 성산)에 대해서도 전문 소독업체 선정을 6월 중으로 완료하고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소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 'ARS 간편납부 시스템' 확대 시행

군산시 징수과에서는 군산시의 모든 세입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6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ARS 간편납부 시스템'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지방세만 가능했지만 일반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시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외수입을 고지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

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납세자는 시스템 대표번호(☎ 1588-5663)로 전화해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용동의 후 본인의 미납 및 체납금액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및 핸드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결제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군산=장현 기자

15일 군산경제 발전방안 토론회

수시탑포럼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한원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정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업 방침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의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환 호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영(군산대 교수), 김미형(호원대 교수), 김형철(군산시 경제산업국장), 고재욱(전북도청 일자리정책관), 김광중(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회장)씨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군산=장현 기자

익산시 '호텔컨벤션' 금주 내 착공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업단지 귀금속 2단지에 조성되는 호텔컨벤션의 행정적 허가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금주 내 착공한다.

익산시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지난 6월 1일 구 조고도화계획승인과 건축허가까지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12층 규모인 호텔컨벤션(4성급) 첫 삽을 뜨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시행사인 웨스트리야프콘소시엠은 내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맞춰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텔컨벤션의 건립은 노후산업단지 고도화사업으로 추진되며, 국가정책 펀드 예산 220억 등 모두 530억원이 투입된다. 호텔컨벤션은 지하 1층, 지상 11층에 객실 161실을 갖춰 900여명을 수용하며 각종 행사나 회의도 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도 학교를 바꾸는 **아침의 여유!**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